

# 3~6세 연령대별 언어장애아동의 언어중재 스크립트 상황에 대한 양육자와 언어재활사의 우선순위 분석

Analyses of Priorities in Contexts for the Script-based Speech Language  
Intervention by Age for 3~6 years Old Children in SLPs and Caregivers

유지원\*, 윤미선\*\*, 최성준\*, 홍경훈\*\*  
순천향대학천안병원 이비인후과\*,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Jeewon Yoo(jeewonyoo4@gmail.com)\*, Mi-Sun Yoon(msyoon@kornu.ac.kr)\*\*,  
Seong Jun Choi(akas9238@hanmail.net)\*, Gyung-Hun Hong(ghun@kornu.ac.kr)\*\*

## 요약

본 연구는 3~6세의 언어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적 스크립트를 활용한 언어중재에서 양육자와 언어재활사가 인식하는 우선적 중재가 필요한 주요 의사소통 상황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예비조사와 본 설문 조사를 거쳐 수집한 데이터를 계층분석 (AHP)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상위 상황 중에서 양육자는 '교육사회생활' 그리고 언어재활사는 '가정생활'을 가장 우선적인 상황으로 선택하였다. 상위별 하위상황의 경우, '가정생활'에서는 '식사', '교육사회생활'에서는 '친구와 놀기'가, 그리고 '여가문화생활'에서는 '놀이터'가 중요한 의사소통 상황으로 인식되었다. 전체 35개의 하위 상황에서 양육자는 '친구와 놀기' 그리고 언어재활사는 '식사'를 선택하였으며, 상위 5순위의 상황을 살펴보면 양육자와 언어재활사 모두 '가정생활'의 상황들이 높은 중요도 비율을 보였다. 아동연령별로 양육자 인식을 분석한 결과, 3세와 6세의 각 양육자 집단은 '가정생활' 그리고 4세와 5세의 각 양육자 집단은 '교육사회생활'을 가장 중요한 상위 상황으로 보았다. 전체 하위상황에서도 아동의 연령별로 양육자의 주요 상황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언어재활사가 스크립트를 활용한 언어중재를 실시할 때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 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요구를 고려한 의사소통 상황의 선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언어중재 | 의사소통 상황 | 스크립트 중재 | 양육자 | 언어재활사 |

## Abstract

The current study aimed to examine how the caregivers and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SLPs) would perceive the important communication contexts for 3~6 year-old children in the script-based interventio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es were conducted for the obtained survey data from SLPs and caregivers. Results showed that caregivers perceived 'educational and social life' and SLPs perceived 'family life' as the most important contexts from among three high-level contexts. Within each high-level context, 'meal time' in 'family life', 'playing with friends' in 'educational and social life', and 'playground' in 'culture and leisure life' were the most important communication contexts. Also, from among 35 global priority rank, caregivers perceived 'playing with friends' while SLPs perceived 'meal time' as the most important contexts, and 'family life' was high priority among first five ranked context both in caregivers and SLPs. In caregiver groups by children's age, 3 year- and 6 year-caregiver groups perceived 'family life' and 4 year- and 5 year-caregiver groups perceived 'educational and social life' as the most important contexts. There were also slight differences between caregiver groups by age in the rank order of communication contexts across the high level contex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LPs may need to consider not only child's age and developmental level but also caregiver's demands in selecting the appropriate communication contexts when delivering the script-based speech language intervention.

■ keyword : | Speech Language Intervention | Communication Context | Script Intervention | Caregiver | SLP |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과제 고유번호 : HI18C0744)

접수일자 : 2019년 01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3월 21일

수정일자 : 2019년 03월 06일

교신저자 : 홍경훈, e-mail : ghun@kornu.ac.kr

## I. 서 론

언어적으로 정상발달을 하는 아동은 연령에 따라 언어습득에 일반적인 공통된 특징을 보여준다. 대략 3세경에는 간단한 문장 산출이 가능하며, 4세가 되면 짧은 이야기를 경청하거나, 문법적으로 다양한 문장 형태들을 사용한다. 5~6세가 되면 3단계 정도의 지시를 듣고 수행이 가능하며, 접속사 등을 사용하고 비교적 길고 상세한 문장 발화를 하여 성인 및 다른 아동과 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1][2].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이러한 전형적인 발달단계를 따르지 않는데, 이들은 의미, 구문, 형태, 음운, 및 화용 범주 등 언어의 다양한 범주에서 결함을 보여준다[3]. 언어의 습득은 상호작용을 통한 대화의 과정에서 습득되는 것이므로 아동의 언어습득에 상호작용과 의사소통능력은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4]. 언어장애 아동의 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중재 방법 중 하나는 스크립트를 이용한 방법이다[5].

스크립트란 '특정 상황이나 활동의 일정한 절차 또는 체계에 대한 기억구조'이다[6]. 따라서 특정 상황에 대한 스크립트는 해당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공한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스크립트에 대한 상황지식은 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언어와 연결되어 학습된다[2]. 따라서 일상적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스크립트 지식은 언어적 맥락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언어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언어재활 현장에서 아동에게 익숙한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연속되는 사건에 대한 지식인 스크립트를 활용한 언어중재가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등 언어장애를 동반한 다양한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그 효과성을 입증해 왔다[7-9]. 4세의 학령전기 자폐아동과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로봇을 이용한 언어중재연구에서 생일파티 스크립트를 활용한 후,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스크립트 중재의 실용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언어재활사가 스크립트를 활용한 중재가 아

동의 언어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대답하였으며, 더불어 아동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스크립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10]. 최근에는 학령기의 언어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스크립트를 활용한 언어중재 효과가 보고되었다.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일파티, 병원놀이, 샌드쿠기 만들기, 음악듣기, 모자이크 만들기, 목욕놀이 등 6개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제시하는 상황, 바람, 믿음을 듣고 아동이 그에 맞는 얼굴표정 그림을 고르거나 표현하도록 한 결과, 모든 대상자들의 사전에 비하여 중재 이후의 정반응률이 증가하였다[11]. 이러한 결과들은 친숙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활동을 통한 스크립트를 활용한 중재가 언어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작용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스크립트를 이용한 언어중재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재효과의 일반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재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적용할 스크립트 상황의 적절성이다. 스크립트를 언어중재에 적용하는 원리를 고려하면, 상황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동의 실제 생활에서 해당 상황의 중요도와 친숙성이다. 아동의 일상생활 형태, 생활 연령, 발달단계, 그리고 양육자의 요구 등이 중요도와 친숙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정신연령 4~5세에 해당하는 경도 정신지체아동4명을 대상으로 5세 옷입기, 5세 병원가기, 9세 옷입기, 9세 병원가기의 스크립트를 이용한 치료 후 아동의 발화를 분석한 결과, 친숙한 상황의 스크립트를 이용한 경우 경도 정신지체아의 표본발화가 향상되었다. 이 결과는 아동의 정신연령에 적합한 친숙한 스크립트의 활용이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12]. 일반적으로 아동의 생활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라 일상적으로 반복되거나 중요한 상황들을 유추할 수 있으나, 실제 일상생활과 양육자의 요구는 개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양육자의 요구는 실제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상황을 평가하고 양육자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장에서는 양육자의 요구에 대한 평가 없이 아동의 생활연령이나 발달단계만을 근거로 상황을 선정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며 양육자의 요구가 고려된 스크립트 중재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환경적 접근법에 근거한,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어휘 선택 연구에서, 의사소통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어휘 선택을 위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적장애 및 기타 장애의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 및 어휘에 관한 설문을 시행하였고,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환경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이 필요한 의사소통 상황 및 어휘에 관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중,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참여한 지역사회환경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슈퍼마켓에서 물건사기' 상황을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선택하였으나 그 외의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간에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보였다. 특히, 지역사회환경에서의 보완대체의사소통 필요성을 체크하는 Likert 평균점수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교사보다는 학부모가 더 높게 나타나 지역사회에서의 의사소통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육자와 언어재활사나 교사가 인식하는 일상의 주요 의사소통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의 실제 일상생활의 중요도를 반영한 스크립트의 선정을 위해선 양육자의 욕구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언어중재 연구에서 아동의 가정, 지역사회, 학교 등의 주요 일상적 환경에 따라 양육자와 언어재활사가 인식하는 주요 의사소통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스크립트 중재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상황을 선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연구 및 임상현장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언어재활사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생활연령과 일상생활 형태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중요한 스크립트 상황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스크립트를 활용한 원격언어재활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부로, 콘텐츠로 개발할 주요 스크립트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특히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 동시에 주된 일상이 가

정에서 또래 교육 기관까지 확대 되는 시기인 3~6세의 언어발달장애 아동들의 양육자와 이 연령에 대한 중재 경험이 있는 언어재활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3~6세 아동 대상 스크립트 중재 상황에 대한 양육자와 언어재활사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 2) 양육자의 경우, 3~6세 연령별 스크립트 중재 상황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 시행 당시, 서울, 경기, 충청, 및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언어중재를 받고 있는 3~6세 아동의 양육자들과 현직 언어재활사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예비조사에는 아동연령대별로 양육자 10명씩, 총 40명의 양육자들과 5명의 언어재활사가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본 조사의 설문에는 3~6세 아동의 양육자 175명과 언어재활사 60명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최종 분석에는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인 계층화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 분석)의 일관성 지수인 0.2를 만족하는[14][15] 63명의 양육자와 31명의 언어재활사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양육자 연령범위는 25세~48세로 평균 36.70세였으며, 3세~6세 아동 연령별 양육자가 모두 참여하였다. 언어재활사의 연령범위는 22세~48세로 평균 30.03세였고, 언어재활사 경력은 평균 5.15년이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배경정보는 [표 1]과 [표 2]과 같다.

표 1. 연구에 참여한 양육자의 배경정보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아동과의 관계	아버지	8	12.7%
	어머니	55	87.3%
학력	고등학교 졸	16	25.4%
	대학교 졸	38	60.3%
	대학원 졸 이상	6	9.5%
아동 성별	남	23	38.5%
	여	40	63.5%

아동 연령	3세	18	28.6%
	4세	14	22.2%
	5세	15	23.8%
	6세	16	25.4%
아동의 교육기관	어린이집	35	55.6%
	유치원	25	39.7%

표 2. 연구에 참여한 언어재활사의 배경정보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성별	여	30	100%
	남	0	0%
최종학력	대학4년 졸	14	45.2%
	석사 졸	16	51.6%
	박사 졸	1	3.2%
자격급수	2급	19	61.3%
	1급	12	38.7%

2. 연구절차

2.1 상황선정 및 예비조사

3~6세 아동의 어휘 및 상황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연구자들의 연구 및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스크립트에 적용할 총 39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상황 리스트는 예비 설문문에 사용되었다. 예비 설문지에는 설문지에 대한 안내와 배경정보 질문 그리고 39개의 상황 목록을 포함하였다. 예비 설문지는 학생연구원 3명이 연령집단별 3~6세 아동의 양육자 각10명씩, 총 40명의 양육자에게 배포하였으며,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아동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의사소통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하도록 요청하였다. 예비 설문 분석결과, 총 39개의 상황들 중에서 응답자의 선택율이 20% 이하인 4개의 항목(텔레비전보기, 공항에서 비행기타기, 컴퓨터하기, 핸드폰사용하기)을 제외하고 총 35개의 항목을 본 조사 설문용 상황으로 선정하였다.

2.2 본조사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한 35개의 상황들 중에서 비슷한 상황들은 대표적인 하나의 상황으로 통합(예: ‘교육기관의 학습활동’과 ‘책읽기’ -> ‘교육기관의 학습활동’)하고, 이후 가정생활, 여가문화생활, 교육사회생활의 3

개의 상위범주로 구분하였다. 분류결과, 가정생활은 씻기, 배변, 식사, 취침, 청소(5개), 여가/문화생활은 놀이터, 놀이공원/동물원, 영화관, 미용실, 마트, 외식(6개), 그리고 교육/사회생활에 교육기관-등하원하기, 교육기관-학습활동, 교육기관-간식시간, 교육기관-생일파티, 친구와 놀기, 병원(6개)로 구성되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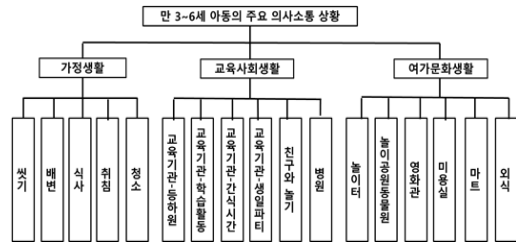


그림 1. 상하위 상황별 계층 구조

이들 상위 범주와 하위상황들을 기반으로 AHP 분석을 위한 쌍대비교 구조(그림 2 참조)로 설문지가 개발되었으며 3명의 학생연구원들이 총 175명의 양육자와 60명의 언어재활사에게 배포 후 회수하였다

구분	요인	적도									요인									
		3계 중요	←	2계 중요	←	1계 중요	←	동준계	←	1계 중요		←	2계 중요	←	3계 중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가정생활																			여가/문화생활
2																				교육/사회생활
3	여가/문화생활																			교육/사회생활

그림 2. 쌍대비교 구조의 예

2.3 연구일정

본 연구는 2018년 5월1일부터 1개월 동안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6월1일부터 1개월 동안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예비 설문에 사용할 상황 리스트를 만들고 예비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7월1일부터 26일까지 예비설문의 배포와 회수하고, 예비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본설문지에 사용할 주요 상황을 분석 및 계층구조를 확립하였다.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전문가 내용 타당도를 실시한 후, 본 연구에 사용될 쌍대비교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8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본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 및 AHP분석이 이루어졌다.

##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AHP기법은 다기준 의사결정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계층구조를 모델로 하여 상위 계층안의 요소 혹은 요인들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각 요소/요인의 가중치를 산출하여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요인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최근 다양한 의사결정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16-18]. 계층화분석의 쌍대비교는 각 요소들을 한 쌍으로 하여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는 ‘9’부터 ‘똑같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1’까지의 숫자를 각 요소에 나열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이렇게 쌍대비교를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는 설문대상자의 판단이 얼마나 일관적인지를 나타내는 일관성 지수 (consistency index: CI)로 결과의 수용가능성을 결정하며, CI가 0.2보다 작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판단한다[14][15].

본 연구를 위해 회수된 설문 데이터는 AHP분석을 위해 Expert Choice 2000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입력되었으며, CI 0.2이하인 데이터만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쌍대비교를 통한 계층분석은 양육자와 언어재활사 집단으로 각각 시행하였으며, 아동의 연령별 분류가 가능한 양육자의 설문 데이터는 다시 아동 연령별 4개의 집단 (3세, 4세, 5세, 6세)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3~6세 전 연령대상 상위 및 하위 상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

#### 1.1 상위 상황 간 우선순위

3~6세 아동의 언어중재 스크립트에 포함할 상위 상황에서 양육자 집단은 ‘교육사회생활’, ‘가정생활’, ‘여가문화생활’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나타냈다. ‘교육사회생활’의 중요도는 40.8%, ‘가정생활’은 36.7%, 그리고 ‘여가문화생활’은 22.6%였다. 언어재활사 집단의 경우, ‘가정생활’, ‘교육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의 순위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의 중요도는 42.6%이며, ‘교육사회생활’은

38.8%, 그리고 ‘여가문화생활’은 18.6%였다[표 3].

표 3. 양육자와 언어재활사의 상위 상황 우선순위

양 육 자	우선순위 (가중치)	상위 상황	우선순위 (가중치)	언 어 재 활 사
	1 (0.408)	교육사회생활	2 (0.388)	
	2 (0.367)	가정생활	1 (0.426)	
	3 (0.226)	여가문화생활	3 (0.186)	

#### 1.2 상위 상황별 하위 상황 간 우선순위

양육자의 경우, ‘교육사회생활’의 하위 상황 순위는 ‘친구와 놀기’ ‘교육기관 학습활동’ ‘병원’ ‘교육기관 등하원’ ‘교육기관 간식시간’ ‘교육기관 생일파티’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순위인 ‘친구와 놀기’는 교육사회생활에서 28.2%의 중요도를 보였으며, 가장 낮은 순위인 ‘교육기관 생일파티’는 11.3%의 중요도를 보였다. 언어재활사의 경우, ‘교육사회생활’의 하위 상황 순위는 ‘친구와 놀기’ ‘병원’ ‘교육기관\_학습활동’ ‘교육기관 등하원’ ‘교육기관 생일파티’ ‘교육기관 간식시간’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순위인 ‘친구와 놀기’는 교육사회생활에서 34.7%의 중요도를 보였으며, 가장 낮은 순위인 ‘교육기관 간식시간’은 11.4%의 중요도를 보였다.

‘가정생활’의 하위 상황의 경우, 양육자와 언어재활사 모두 ‘식사’ ‘배변’ ‘씻기’ ‘취침’ ‘청소’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순위인 ‘식사’의 가정생활에서 중요도는 양육자와 언어재활사가 모두 26.3%였으며, 가장 낮은 순위인 ‘청소’의 중요도는 양육자 10%, 언어재활사는 10.7%였다.

‘여가문화생활’의 하위 상황 순위는 양육자와 언어재활사 모두 ‘놀이터’ ‘마트’ ‘외식’ ‘놀이공원동물원’ ‘미용실’ ‘영화관’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순위인 ‘놀이터’는 양육자는 29.3%, 언어재활사는 33.4%의 중요도를 보였고, 가장 낮은 순위인 ‘영화관’은 양육자는 9.5%의 중요도를 그리고 언어재활사는 7.1%의 중요도를 보였다[표 4].

표 4. 양육자와 언어재활사의 상위 상황별 하위 상황 우선순위

양육자	상위상황	우선순위	하위 상황	우선순위	언어재활사
		(가중치)		(가중치)	
교육사회생활	1	0.282	친구와 놀기	1	0.347
	2	0.187	교육기관 학습활동	3	0.127
	3	0.163	병원	2	0.174
	4	0.141	교육기관 등하원	4	0.120
	5	0.113	교육기관 간식시간	6	0.114
	6	0.113	교육기관 생일파티	5	0.117
가정생활	1	0.263	식사	1	0.263
	2	0.249	배변	2	0.249
	3	0.210	씻기	3	0.192
	4	0.177	취침	4	0.189
	5	0.100	청소	5	0.107
여가문화생활	1	0.293	놀이터	1	0.334
	2	0.180	마트	2	0.241
	3	0.172	외식	3	0.162
	4	0.147	놀이공원 동물원	4	0.098
	5	0.112	미용실	5	0.094
	6	0.095	영화관	6	0.071

1.3 전체 상황 간 우선순위

3~6세 아동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가중치를 고려한 전체 하위 상황 간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친구와 놀기’ ‘식사’ ‘배변’ ‘씻기’ ‘교육기관 학습활동’이 상위 5순위로 나타났으며, 11.3%~7.5%의 중요도 범위를 나타냈다. 상위 순위에 포함된 상황들은 모두 ‘가정생활’ 과 ‘교육사회생활’에 속한 상황들이었다. ‘취침’ ‘병원’ ‘놀이터’ ‘교육기관 등하원’ 등의 상황들이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순위 5개의 상황으로는 ‘마트’ ‘외식’ ‘놀이공원동물원’ ‘미용실’ ‘영화관’ 순으로 3.9~2% 중요도로 나타났으며 모두 ‘여가문화생활’ 범주에 속하였다 [표 5]. 반면, 언어재활사의 경우, ‘식사’ ‘배변’ ‘친구와 놀기’ ‘씻기’ ‘취침’이 전체 상위 5 순위로, 12.9%~9.3%의 중요도로 나타났으며 모두 ‘가정생활’ 과 ‘교육사회생활’의 범주였다. ‘병원’ ‘놀이터’ ‘청소’ ‘교육기관 학습활동’ 등의 상황들이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순위 5개의 상황으로는 ‘교육기관 간식시간’ ‘외식’ ‘놀이공원동물원’ ‘미용실’ ‘영화관’ 순으로 3.9~1.2% 중요도로 나타났으며, ‘교육기관 간식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여가문화생활’ 범주에 속하였다[표 5].

표 5. 양육자와 언어재활사의 전체 하위 상황 우선순위

양육자	우선순위	하위 상황	우선순위	언어재활사	
	(가중치)		(가중치)		
	1	0.113	친구와 놀기	3	0.118
	2	0.102	식사	1	0.129
	3	0.096	배변	2	0.123
	4	0.081	씻기	4	0.095
	5	0.075	교육기관 학습활동	9	0.043
	6	0.068	취침	5	0.093
	7	0.065	병원	6	0.059
	8	0.063	놀이터	7	0.056
	9	0.057	교육기관 등하원	11	0.041
	10	0.045	교육기관 간식시간	13	0.039
	11	0.045	교육기관 생일파티	12	0.040
	12	0.039	청소	8	0.053
	13	0.039	마트	10	0.041
	14	0.037	외식	14	0.027
	15	0.031	놀이공원동물원	15	0.016
	16	0.024	미용실	16	0.016
	17	0.020	영화관	17	0.012

2. 3~6세 연령별 양육자의 상위 및 하위 상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

2.1 상위 상황 간 우선순위

아동 연령별로 상위 상황을 우선순위 분석 결과, 3세 아동 양육자 집단의 경우, ‘가정생활’ 40%, ‘교육사회생활’ 38.5%, 그리고 ‘여가문화생활’ 21.4%의 순서로 나타났다. 4세 아동과 5세 양육자 집단은 ‘교육사회생활’ ‘가정생활’ ‘여가문화생활’ 순서로 같은 우선순위를 나타냈다. 그러나 중요도 비율에서는 4세 아동의 양육자가 ‘교육사회생활’은 42.6%, ‘가정생활’은 36.6%, ‘여가문화생활’은 20.9%를 나타낸 반면 5세 아동의 양육자는 ‘교육사회생활’은 45.5%, ‘가정생활’은 28.1%, ‘여가문화생활’은 26.4%로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6세 아동 양육자의 경우,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가정생활’ 41.5%, ‘교육사회생활’ 36.8%, ‘여가문화생활’ 21.6%로 3세 아동의 양육자 집단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표 6].

표 6. 아동연령별 양육자의 상위 상황 우선순위

상위 상황	순위 및 가중치			
	3세 양육자	4세 양육자	5세 양육자	6세 양육자
가정생활	1 (0.401)	2 (0.366)	2 (0.281)	1 (0.415)
교육사회생활	2 (0.385)	1 (0.426)	1 (0.455)	2 (0.368)
여가문화생활	3 (0.214)	3 (0.209)	3 (0.264)	3 (0.216)

2.2 상위 상황별 하위 상황 간 우선순위

3세 아동 양육자 집단의 경우, ‘가정생활’ 범주 안에서 ‘배변’ ‘식사’ ‘씻기’ ‘취침’ ‘청소’의 순서로, ‘교육사회생활’ 범주 안에서 ‘친구와 놀기’ ‘교육기관 학습활동’ ‘교육기관 등하원’ ‘병원’ ‘교육기관 간식시간’ ‘교육기관 생일파티’의 순서로, 그리고 ‘여가문화생활’ 범주 안에서 ‘놀이터’ ‘외식’ ‘마트’ ‘놀이공원동물원’ ‘미용실’ ‘영화관’의 순서로 나타났다.

4세 아동의 양육자 집단은 ‘가정생활’ 범주 안에서 ‘배변’ ‘식사’ ‘씻기’ ‘취침’ ‘청소’의 순서로, ‘교육사회생활’ 범주 안에서는 ‘친구와 놀기’ ‘병원’ ‘교육기관 등하원’ ‘교육기관 학습활동’, ‘교육기관 간식시간’ ‘교육기관 생일파티’의 순서로, 그리고 ‘여가문화생활’ 범주 안에서는 ‘놀이터’ ‘놀이공원동물원’ ‘마트’ ‘외식’ ‘미용실’ ‘영화관’의 순서로 상황의 우선순위를 선택하였다.

5세 아동의 양육자 집단은 ‘가정생활’ 범주 안에서 ‘식사’ ‘배변’ ‘씻기’ ‘취침’ ‘청소’의 순서로, ‘교육사회생활’ 범주 안에서는 ‘친구와 놀기’ ‘교육기관 학습활동’, ‘교육기관 간식시간’ ‘병원’ ‘교육기관 생일파티’ ‘교육기관 등하원’의 순서로, 그리고 ‘여가문화생활’ 범주 안에서는 ‘놀이터’ ‘외식’ ‘마트’ ‘놀이공원동물원’ ‘미용실’ ‘영화관’의 순서로 상황의 우선순위를 선택하였다.

6세 아동의 양육자 집단의 경우, ‘가정생활’ 범주 안에서 상황은 ‘식사’ ‘씻기’ ‘배변’ ‘취침’ ‘청소’의 순서로, ‘교육사회생활’ 범주의 하위 상황은 ‘친구와 놀기’ ‘교육기관 학습활동’ ‘병원’ ‘교육기관 등하원’ ‘교육기관 생일파티’ ‘교육기관 간식시간’의 순서로, 그리고 ‘여가문화생활’ 범주 안에서 ‘놀이터’ ‘마트’ ‘외식’ ‘놀이공원동물원’ ‘미용실’ ‘영화관’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7].

표 7. 아동연령별 양육자의 상위 상황 하위 상황 우선순위

상위 요소	하위 상황	순위 및 가중치			
		3세 양육자	4세 양육자	5세 양육자	6세 양육자
가정 생활	식사	2 (0.245)	2 (0.250)	1 (0.268)	1 (0.288)
	배변	1 (0.298)	1 (0.273)	2 (0.231)	3 (0.198)
	씻기	3 (0.187)	3 (0.188)	3 (0.219)	2 (0.247)
	취침	4 (0.178)	4 (0.187)	4 (0.171)	4 (0.171)

	청소	5 (0.092)	5 (0.102)	5 (0.111)	5 (0.096)
교육 사회 생활	친구와 놀기	1 (0.267)	1 (0.267)	1 (0.281)	1 (0.303)
	병원	4 (0.151)	2 (0.234)	4 (0.133)	3 (0.152)
	교육기관 학습활동	2 (0.210)	4 (0.147)	2 (0.205)	2 (0.184)
	교육기관 등하원	3 (0.153)	3 (0.157)	6 (0.120)	4 (0.135)
	교육기관 생일파티	6 (0.106)	6 (0.097)	5 (0.125)	5 (0.120)
	교육기관 간식시간	5 (0.112)	5 (0.098)	3 (0.136)	6 (0.106)
여가 문화 생활	놀이터	1 (0.312)	1 (0.361)	1 (0.264)	1 (0.242)
	마트	3 (0.177)	3 (0.152)	3 (0.161)	2 (0.232)
	외식	2 (0.187)	4 (0.140)	2 (0.189)	3 (0.164)
	놀이공원 동물원	4 (0.135)	2 (0.163)	4 (0.143)	4 (0.148)
	미용실	5 (0.103)	5 (0.103)	5 (0.134)	5 (0.110)
	영화관	6 (0.086)	6 (0.081)	6 (0.109)	6 (0.105)

2.3 전체상황 간 우선순위

아동 연령별 양육자를 대상으로 가중치를 고려한 전체 하위 상황 간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3세 아동 양육자 집단은, ‘배변’ ‘친구와 놀기’ ‘식사’ ‘교육기관 학습활동’ ‘씻기’가 상위 5개의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11.5~7.2%의 중요도를 나타냈다. 그 뒤로 ‘취침’ ‘교육기관 등하원’ ‘병원’ ‘놀이터’ ‘교육기관 간식시간’ 등의 순서를 보였으며, 1위~8위까지는 ‘가정생활’과 ‘교육사회생활’ 범주의 하위 상황이었으며, ‘여가문화생활’ 범주의 하위 상황들은 모두 9위 이하로 나타났다. 하위 5개의 상황으로는 ‘청소’ ‘마트’ ‘놀이공원동물원’ ‘미용실’ ‘영화관’ 순으로 ‘청소’를 제외하고 모두 ‘여가문화생활’ 범주의 상황으로 구성되었다.

4세 양육자 집단은 ‘친구와 놀기’ ‘병원’ ‘배변’ ‘식사’ ‘씻기’가 상위 5개의 상황으로, 12.1~7.2%의 중요도를 보였으며 이 상황들은 모두 ‘가정생활’과 ‘교육사회생활’의 범주에 속하였다. 그 뒤로 ‘취침’ ‘교육기관 등하원’ ‘교육기관 학습활동’ ‘놀이터’ ‘교육기관 간식시간’ 등의 순서를 보였으며, 3세 양육자 집단과 비슷하게 ‘여가문화생활’ 범주의 하위 상황들은 9위 이하로 나타났다. 하위 5개의 상황으로는 ‘놀이공원동물원’ ‘마트’ ‘외식’ ‘미용실’ ‘영화관’ 순으로 모두 ‘여가문화생활’ 범주의 상

항으로 구성되었다.

5세 양육자 집단에서는 ‘친구와 놀기’ ‘교육기관\_학습활동’ ‘식사’ ‘놀이터’ ‘배변’이 상위 5개의 상황으로 나타났다. 12.4%~9.0%의 중요도를 보였다. 다른 아동 연령의 양육자 집단은 다르게 ‘가정생활’ ‘교육사회생활’ 범주 외에 ‘여가문화생활’ 범주의 상황인 ‘놀이터’가 4번째 중요 상황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씻기’ ‘교육기관 간 간식시간’ ‘병원’ ‘교육기관 생일파티’ ‘교육기관 등하원’ 등의 순서를 보였다. 하위 5개의 상황으로는 ‘마트’ ‘놀이공원동물원’ ‘미용실’ ‘청소’ ‘영화관’ 순으로 16위인 ‘가정생활’ 범주의 상황인 ‘청소’를 제외하고 모두 ‘여가문화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세 양육자 집단의 경우, ‘식사’ ‘친구와 놀기’ ‘씻기’ ‘배변’ ‘취침’이 상위 5개의 상황으로 11.7~6.9%의 중요도를 보였으며 이 상황들은 모두 ‘가정생활’과 ‘교육사회생활’의 범주에 속하였다. 그 뒤로 ‘교육기관 학습활동’ ‘놀이터’ ‘마트’ ‘병원’ ‘교육기관 등하원’ 등의 순서를 보였으며, 7위인 ‘놀이터’와 8위인 ‘마트’에 ‘여가문화생활’ 범주가 나타났다. 하위 5개의 상황으로는 ‘청소’ ‘놀이공원동물원’ ‘교육기간 간식시간’ ‘미용실’ ‘영화관’ 순으로 15위 ‘교육사회생활’ 범주의 상황인 ‘교육기간 간식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여가문화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아동연령별 양육자의 전체 하위 상황 간 우선순위

하위 상황	순위 및 가중치			
	3세 양육자	4세 양육자	5세 양육자	6세 양육자
식사	3 (0.095)	4 (0.096)	3 (0.077)	1 (0.117)
배변	1 (0.115)	3 (0.104)	5 (0.066)	4 (0.080)
씻기	5 (0.072)	5 (0.072)	6 (0.063)	3 (0.100)
취침	6 (0.069)	6 (0.071)	12 (0.049)	5 (0.069)
청소	13 (0.036)	12 (0.039)	16 (0.032)	13 (0.039)
친구와 놀기	2 (0.111)	1 (0.121)	1 (0.124)	2 (0.104)
병원	8 (0.063)	2 (0.106)	8 (0.059)	9 (0.052)
교육기관 학습활동	4 (0.087)	8 (0.067)	2 (0.090)	6 (0.063)
교육기관 등하원	7 (0.064)	7 (0.071)	10 (0.053)	10 (0.046)
교육기관 생일파티	11 (0.044)	11 (0.044)	9 (0.055)	12 (0.041)

교육기관 간식시간	10 (0.047)	10 (0.045)	7 (0.060)	15 (0.036)
놀이터	9 (0.062)	9 (0.059)	4 (0.072)	7 (0.061)
마트	14 (0.035)	14 (0.025)	13 (0.044)	8 (0.058)
외식	12 (0.037)	15 (0.023)	11 (0.052)	11 (0.041)
놀이공원동물원	15 (0.027)	13 (0.027)	14 (0.039)	14 (0.037)
미용실	16 (0.020)	16 (0.017)	15 (0.036)	16 (0.028)
영화관	17 (0.017)	17 (0.013)	17 (0.030)	17 (0.026)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3~6세 언어장애아동의 스크립트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들에 대한 양육자와 언어재활사 그리고 아동 연령별 양육자의 인식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주요 일상적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육자와 언어재활사는 아동의 주요 의사소통 상황의 우선순위에서 대체로 유사한 인식을 나타냈으나 세부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의 상위 및 하위 상황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언어재활사 집단은 ‘가정생활’ 관련 상황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양육자 집단은 ‘교육사회생활’ 관련 즉, 친구들과 놀거나 교육기관의 학습, 간식, 등하원 등을 다른 상황들에 비해 좀 더 우선적 중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자의 경우에 3~6세 아동들이 접하게 되는 교육사회생활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반면 언어재활사의 경우, 어린 연령대의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가정생활을 위주로 중요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언어장애 학생들의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환경 상황들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가 교사보다 지역사회 관련 상황들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13].

각 상위별 하위 상황을 살펴보면, ‘가정생활’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식사’를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사회생활'의 경우는 '친구와 놀기'를 그리고 '여가문화생활'의 경우, '놀이터'를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식사의 중요도는 두 그룹 모두 약 26.3%로 비슷한 반면, '친구와 놀기'는, 양육자는 28.2%, 언어재활사는 34.7%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놀이터'도 양육자는 29.3%, 언어재활사는 33.4%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 상황들 간의 비율 및 전체 하위상황 순위 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양육자가 언어재활사에 비해 또래 친구들 간의 상호작용 상황을 덜 중요하게 인식하기보다는 다른 하위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언어재활사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하위 상황의 순위결과 중 상위 5순위에 포함된 상황을 살펴보면 양육자의 경우, '식사', '배변', '씻기'의 '가정생활'의 하위 상황들이 전체 약 27.8%의 중요도로 나타난 반면에 언어재활사의 경우, '식사', '배변', '씻기', '취침'의 '가정생활'의 하위 상황이 약 44%의 중요도 비율을 보였다. 이는 두 집단이 상위 순위에 포함된 상황들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지만 언어재활사들이 양육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정생활'과 관련된 하위 상황들에 편중된 중요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양육자들은 언어재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도 고른 중요도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상위 상황과 전체 하위 상황들에서 양육자와 언어재활사 집단이 나타낸 상황별 중요도 비율의 분포 결과도 그와 같은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시사한다.

아동연령에 따라 양육자가 생각하는 아동의 주요 의사소통 상황의 분석 결과, 모든 연령대의 양육자들이 '여가문화생활'보다 '가정생활'과 '교육사회생활'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전체 상황들 중에서 '친구와 놀기'가 1~2위의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유사성을 나타냈다.

아동 연령별로 중요한 세부적 차이로는 상위 상황에서는 3세와 6세 양육자 집단은 '가정생활'을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본 반면, 4세와 5세 양육자 집단은 '교육사회생활'을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의 연령별 발달과 주요 일상 환경의 변화와 연결하여 볼 수 있다. 3세의 경우는

4-5세 집단에 비하여 양육자들에게 가정생활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아직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4-5세는 3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기관에서의 또래 상호작용상황이 빈번해지는 시기로 교육기관의 규칙이나 사회생활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기이다. 실제로 3세에 비해 4-5세 이상에서 유치원 등록 인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며[19], 유치원 교육과정의 세부 활동 중에 친구들과 인사나누기, 다른 학급 친구들과 인사 나누기, 친구 사귀기, 짝과 함께 지내기, 친구들 소개하기, 친구를 기분 좋게 하는 일, 친구에게 사과하기 등 친구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활동은 4-5세에 걸쳐 주요 주제로 제시되어 있다[20][21].

각 상위의 하위 상황들도 아동 연령에 따라 양육자가 인식하는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3세와 4세 양육자 집단은 '가정생활'에서 '배변'상황을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5세와 6세 양육자 집단은 '식사'상황을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배변 학습이 대부분 완료되는 5세 양육자의 경우 '배변'상황은 2번째 순위로, 6세 양육자 집단의 경우는 3번째 순위에 나타나 그 중요도가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식사' 상황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인의 도움 없이 본격적으로 혼자서 먹기가 기대되는 연령인 5세부터 양육자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배변'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하면 6세에서 4-5세의 양육자들과 달리 '교육사회생활'보다 '가정생활'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은 6세가 되면 '가정생활'의 '씻기'나 '식사'와 같은 활동에서 어린 연령과 구별되는 자립적인 능력을 키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동연령별 양육자 집단의 전체 하위 상황 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1~5위까지는 전 연령대에 걸쳐 '가정생활'의 하위 상황들이 많이 위치해 있으며 '여가문화생활'의 하위 상황들은 대부분 하위 순위로 나타났으나, 5세와 6세 양육자 집단에서는 놀이터나 마트와 같은 '여가문화생활'의 상황들이 비교적 상위 순위인 4위~8위 사이에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양육자가 아동을 여가문화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및 바깥 활동에 더 참여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스크립트를 활용한 언어중재에서 우선해야 하는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객관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제시하였다. 동시에 아동의 중요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양육자와 언어재활사의 인식과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양육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실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들을 중재 활동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기능적인 언어중재의 기본 원리이다[4]. 특히 어린 아동들의 언어중재에서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아동의 직접적인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의 요구반영과 참여여부는 언어중재 성과를 가름하는 핵심 요소이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현장의 언어중재나 관련 연구에서 활동 상황의 선정에 양육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 양육자와 언어재활사의 사이에 3~6세 아동에게 적합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선행연구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3].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스크립트 중재와 관련된 연구에서 양육자의 요구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또한 아동의 연령별 주요 의사소통 상황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양육자의 요구에 따른 발달 장애 아동의 상황선정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비교논의가 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많은 관련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J. B. Gleason and N. B. Ratner, *The development of language*, Pearson, 2013.
- [2] 김영태,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학지사, 2015.
- [3] P. Rhea and C. Norbury, *Language disorder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and communicating*, Morsby, 2011.
- [4] R. E. Owen, *Language Disorders: A Function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earson, 2010.
- [5] P. J. Yoder, H. Spruytenburg, A. Edward, and B. Davies, "Effect of verbal routine contexts and expansions on gains in the mean length of utterance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Vol.26, pp.21-32, 1995.
- [6] R. C. Schank and R. P. Abelson, *Scripts, plans, goals, and understanding*, Lawrence Erlbaum Associate, 1977.
- [7] 김설영, 최윤희, "요리 스크립트를 이용한 대화 주고받기 전략이 발달지체 유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제13권, 제1호, pp.121-144, 2013.
- [8] Y. T. Kim, Y. S. Yang, and B. Hwang, "Generalization effects of script-based intervention on language expression of preschool children with language disorders,"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36, No.4, pp.411-423, 2001.
- [9] J. Lucariello, "Freeing talk from the here-and-now: the role of event knowledge and mental scaffolds,"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Vol.10, No.3, pp.14-29, 1990.
- [10] H. W. Lee and E. J. Hyun, "The intelligent robot contents for children with speech-language disorder,"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Vol.18, No.3, pp.100-113, 2015.
- [11] 서유진, 박은실, 신혜정, "학령기 자폐범주장애 아동의 마음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스크립트 중재의 효과," *언어치료연구*, 제27권, 제3호, pp.135-147, 2018.
- [12] 이희주, 강수균, "난이도별 스크립트의 교차적 중재가 경도 정신지체아동의 표본발화 향상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제9권, 제2호, pp.41-53, 2000.
- [13] 박은혜, 이정은, "보완대체 의사소통체계 적용을 위한 상황 중심 핵심어휘 개발 연구," *재활복지*, 제4권, 제1호, pp.96-122, 2000.
- [14] J. G. Dolan, "Shared decision making-transferring research into practice: the Analytic Hierarchy

